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구집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다시 사진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십자가의 고난, 부활의 영광

지난 2월 21일, 재의 수요일의 메시지(회개, 율 2:12, 13)로 시작한 사순절기를 통하여 중언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매주일과 수요일에 선포된 이사가 53장의 말씀은 강력한 성령의 힘이 되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었습니다. 그 필름속에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도살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주력교구를 중심으로 매일 계속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는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수난의 온전을 성령에 깊이 새기는 은총의 토로였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에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며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당일 금요찬양집의 시의 말씀과 찬양 그리고 성찬식을 통하여 예배당은 마치 2000여 년 전 고통의 신음과 피땀으로 진동했던 갈보리 언덕이었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찢어진 살과 흘린 피를 기념하며 보혈의 은총을 심경 가득히 채웠습니다.

분명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기조차 싫은 수치의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진주곡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20) 하나님은 십자가 수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도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고전 15:23) 사순절기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매순간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로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행 1:22)

*부활주일 특별 찬양은 오는 찬양예배 시에 있습니다.

사순절 메시지 요약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난 사순절기에 이사가 53장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누가 믿었는가! (이사야 53:1,2) 예수님 당시의 경건한 유대인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 그런데 성경에 정통한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흠대받고 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모습이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전혀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행복, 영광, 권력, 명예, 건강과는 전혀 관계없다. 그러나 전혀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구주 예수님만을 믿자!

슬픔의 사람 (이사야 53:3) 성경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 "슬픔의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그분 스스로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깊고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셨고 간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심지어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사람이었다. 왜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혼자 그 슬픔을 짊어지려 하는가? 우리의 슬픔을 만드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자. 오직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 53:5)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자. 우리의 계산법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계산법에는 그리스도의 필립과 상함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징계와 채찍으로 주시는 참 평화가 있다. 그런데 정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갈보리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 세상의 계산법을 내세우며 십자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은가? 십자가를 무시했던 자신의 악한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자. 오직 믿음으로 자기를 부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 매 하나님 사랑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대답이다.

우리는 다 (이사야 53:6) 우리는 모두 불행한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을 살아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보시고 주님은 죄를 멀리 던져버리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이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 저주받은 자들이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잘못된 길을 갔다. 이 엄청난 죄의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구주 (이사야 53:7) 곤욕과 괴로움 속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은 최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친히 잠잠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구주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자존심과 교만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고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입을 벌려 소리치고 있지 않은가?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입술을 닫고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외치자.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열심을 낼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한다. 그러므로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해 열려 있는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자.

십자가의 승리 (이사야 53:8~12) 이사가 선지자는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십자가의 승리에 대해 예언하였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부활이 있고 의롭다하심과 예수님의 증보기도가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십자가의 승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다.

WITH THE RESURRECTION CHRIST

⁽¹³⁾And behold, two of them were going that very day to a village named Emmaus, which was about seven miles from Jerusalem. ⁽¹⁴⁾And they were talking with each other about all these things which had taken place. ... ⁽³³⁾And they got up that very hour and returned to Jerusalem, and found gathered together the eleven and those who were with them, ⁽³⁴⁾saying, "The Lord has really risen, and has appeared to Simon."

⁽³⁵⁾They began to relate their experiences on the road and how He was recognized by them in the breaking of the bread. (Luke 24:13~35)

The day of Jesus' resurrection was a victoriously great day! The world never had a day like this before. Resurrection is itself a wonderful word. Do you know of any word more exciting? Strangely, it was a day doubted by Jesus' disciples and believed by His enemies (Mt. 28:11~15) Resurrection Day, what we now refer to as Easter, was the day that all God's people should have jumped with joy, but the doubting disciples in today's Bible passage were sad and lonely. They were going away from Jerusalem and toward their homeland. On this remarkable and majestic day, they should have been with the Resurrection Christ. Jesus Christ came into this world as a baby, born in the land of Bethlehem to a lowly carpenter who laid Him down in a manger. As the humble Son of God, He came into this world to die on a cross. During His three year ministry, He was a friend to the sick and poor. He raised dead people, cried for Jerusalem, and remained quiet at His court sentencing. As He was dying on the cross in perfect obedience, He prayed for God the Father to forgive all those who were persecuting Him. He led an amazing and incredible life. However you look at it, His life was more than wonderful. As the Resurrection Christ, today's Bible passage shows us what He did.

The Resurrection Christ walked with the two Emmaus disciples. He showed up to these depressed men and did not scream and yell at their stupidity, but rather followed along with their conversation. If you or I reappeared to some close friends after dying and telling them to expect our return, but they did not listen, we would probably be very upset. When we saw these friends, we would probably run up to them and say, "Look at me fool, after everything I taught you, how could you be so dumb." Jesus handled these depressed and doubtful disciples with extreme care, just like He loves you and me today, "While they were talking and discussing, Jesus Himself approached and began traveling with them." (v. 15) His humble approach is wonderful. How wonderful I cannot explain, but do you see the wonder? Could you really be so humble? These men were so sad when they should have been so excited on this victorious day, but Jesus did not rebuke them. Instead, He approached them and walked with them. The Resurrection Jesus Christ is never far from you. He always walks with you, even when you do not realize it. His victory is soft and humble. He travels along beside you to help guide and direct you onto the narrow pathway.

The Resurrection Christ handled the problem of the two Emmaus disciples. He said to them, "What are these words that you are exchanging with one another as you are walking?" (v. 17) Jesus is

actually God, so He knew what they were talking about and what their problem was, but He waited for their answer. They thought that their teacher was absolutely dead, which is why they were so sad. Often times Christians act in similar poor fashion. They do not really believe in Jesus' resurrection and victory. Sure, many of you proclaim that Jesus is alive but you do not act like it! If Jesus is alive, then how come you are depressed or sad right now? Why do you behave as if He is dead? Why do you appear to be exactly like the Emmaus disciples, even though Jesus is the victorious Lord? He wants to give you the right answer, no matter if your prayers are weak. He overcame sin and death. He destroyed all their power over your life. He is the Risen Savior, so please remember Him and His words. His victory brings salvation to your soul.

The Resurrection Christ set fire to the Emmaus disciples' hearts. When they finally recognized Jesus, they said to one another, "Were not our hearts burning within us while He was speaking to us on the road, while He was explaining the Scriptures to us?" (v. 32) Jesus placed the fire of the Holy Spirit on their hearts. They looked back and repented over their mistakes. They regretted their behavior, and their faith changed. Now, they are happy and excited. They could not even spend the night at home, but had to rise up and return to Jerusalem because in their hearts was the Resurrection Christ. Jesus visited them with humbleness in their dilemma. Their doubts and fears caused their souls to become lazy and sleepy, but the Resurrection Christ Jesus woke them up with the Holy Scriptures. As they sat down for dinner, Jesus "took the bread and blessed it, and breaking it, He began giving it to them. Then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recognized Him; and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vv. 30&31) As Jesus reached for the bread, they saw His nail pierced hands. The Scriptures opened their eyes to see their Redeemer and Savior.

My dear friend, today is the second Sunday following Easter. Jesus wants to set your heart on fire with His love. Is your heart filled with the fire of the Holy Spirit? Is your life changing? If you allow Him to enter your life, He will open your eyes to the Bible and save your soul from utter destruction. His power is wonderful. He will quietly walk with you and talk with you and tell you that you are His own. Please ask Jesus to forgive you, guide you, teach you, and control you. He is the Risen Savior. He will travel with you from here to heaven, taking care of all your problems, and filling you with His love. Walk with the Resurrection Christ, talk with the Resurrection Christ, and let the Resurrection Christ set you on fire. Amen.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4. 4.)

믿는 자의 친구 (요한복음 15:13~15)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요 15:3,4)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요 15:8)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요 15:11) 이 기쁨은 우리가 처한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매를 볼 수 있게 한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를 깊이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요 15:12,17)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다. 분별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미워한다.(요 15:19)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핍박이 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매우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른다.(요 15:21)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요 15:26,27)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특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목하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람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 15:13,14) 예수님은 믿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신다. 종이 아닌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단 하나의 조건은 믿음이다.(요 15:15) 믿는 자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믿는 자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다. 진실로 사랑하기에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다.(요일 3:16)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나에게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분인가? 영의 눈을 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요 3:16)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랑!” 그런데 우리는 영생으로 열려 있는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외식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 회개함을 또 다시 십자가에 매달아 못박고 있지 않은가? 이 약한 모습을 영생을 얻게 하신다.(참 349장)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가주니라”(딤후 1:15)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믿는 자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믿는 자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다. 죄로 가득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받아주셨다.(롬 5:8) 하나님

과 원수였지만 예수님은 받아주셨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십자가의 극한 고통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죽게 하셨다.(롬 5:10) 그러므로 양심적으로 살려 하지 말고 모든 죄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라. “내가 네 허물을 뽐낼한 그름의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사 44:22) 예수님은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믿는 자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셨다. 따라서 우리의 사람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있어야 한다.(요일 1:3,4)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전해야 한다.(마 28:20) 우리의 이성과 지성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 때 복음의 역사는 일어난다. 자신의 약함이 아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히 13:5)는 말씀을 믿자.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지 말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예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러나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살전 4:17)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는 자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주의 하나님임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계 21:7) 예수님은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은 총으로 가득한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로 가득한 죄인 과수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다. 결국 이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롬 5:1)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자.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가 되자. 믿는 자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만이 내 삶의 능력이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령 되시니 내 친구 되시니 내 기쁨 되시니 의지하고 따라 갈 이 주 예수.”(전 93장) 아멘.

“돌아오라” 난 요즘 여러 가지 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던 청년들이었다. 사실 사순절 기간이 찾아온 즈음 난 청년들을 향한 열정이 있는 채, 무기력한 자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년부 수련회 이후에 그 열정과 충만함은 하나 돌씩 사라져갔고, 모두가 그 전의 모습들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두 해를 거듭해서 보는 내년에 실망과 함께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드러나는 문제들과 지금 나의 현실을 밝히 보면서 결국, ‘예수님 나 힘들어요!’ 라고 자포자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알았다. 한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인물을 흘리게 하셨다. 수많은 일들을 겪고 난 후에도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싫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멸시를 당하셨다는 것을 문제들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 그를 싫어했던 자가 나였고, 슬프게 하고 결멸하며 멸시하던 자가 바로 나였음을 말이다. ‘얼마나 아프겠는가 ...’ 기껏 몇몇 문제와 몇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다고 모든 것을 내어던진 생각부터 했던 내 모습이 얼마나 참심스러웠던지... 예수님은 ‘돌아오라’고 절규하시며 탄원하시는 확실한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를 보았졌는 나에게 지어주시길 원하셨던 것이다.

때마침 투안 퍼셀의 성경적 리더십 강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더 특별한 자격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다.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다. 청년들은 교회의 장래

이기에 내가 그들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되었다. 유래없는 경쟁 속에서 분주함과 피곤으로 지쳐 있는 그들에게 기도가 절실함을 느꼈다. 진실로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만 믿는 우리의 도구가 되어지길 소망한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과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요 4:29)

지금 난 전도중이다. 여전히 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사실 난 어느 곳도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예수님께로만 달려간다. 애써 모든 것을 부정하려 해보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내 마음이 더 잘 알기에 나를 포기해 버렸다. 은혜 가운데 새롭게 달려나오는 고난주간 첫 새벽, 새벽 말씀이 지금껏 나를 지탱하고 있었음을 새삼 깨닫는다.(고전 15:1,2)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요 6:40) 전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만났던 전도사님의 얘기가 잊혀지지 않는다. “내가 가장 만나고 싶은 자를 돌보며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그 교회를 주님이 새워갈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날 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 청년부와 새가족양육부를 오가는 내 마음은 항상 즐겁기만 하다.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김화선(전사, 새가족양육부 교사)

오직 예수님만이!

작은 1팀

- ◆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도지를 다시 돌려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난 번 선교 때는 화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다.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겠다. (김진호 성도)
- ◆ 결혼을 앞두고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배우자와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다. 결혼 후에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가족들을 설득했다. 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마음 속에 기쁨과 평안만이 가득했다. (최은영 집사)
- ◆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참 진리이고 영생을 얻는 방법임을 선교지의 어린이들이 깨달아 갔으면 좋겠다고 매일 밤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잠을 청한다. 지금도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를 한다. 올해도 주님께서 이 쓸데없는 자를 성령의 도구로 삼아 역사하심을 무엇보다도 감사한다. (이정기 집사)
- ◆ 오직 십자가만 바라볼 때 선교지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셨다. (심재웅 집사)
- ◆ 모든 일이 내 능력과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며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주님의 뜻과 승리가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보기에 언어가 서툴렀던 한 집사님은 열심히 전도했고 그것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찬양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였다. (설 용 집사)
- ◆ 주님께서 선교를 통해 그 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축복을 주셨지만, 나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순주 집사)
- ◆ 처음 단기선교 갔을 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지역 현실적으로 모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대부분 처음으로 예수님을 들었고, 많은 아이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었다며 좋아했다. (문숙향 집사)
- ◆ 자기부인을 통한 몇 차례의 선교와 자기부인 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여지고 십자가만이 남은 선교, 이제는 교회가 세워져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길 기도한다. (김병수 안수집사)
- ◆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린 영혼들이 어떻게 처음 듣는 찬양을 따라 부르겠는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다. 선교지를 사랑하시어 보내주심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김형진 안수집사)

5월·6월 CMTC 훈련 안내

현재, "가라"(행 8:26)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선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교위원회는 지난 3월로 정규 CMTC 훈련을 마쳤지만 하반기에 선교를 예정 중인 우리 교회 성도 및 타교회 선교지원자들의 요청이 많아 추가로 5월과 6월(첫째·둘째 주일)에 다시 CMTC 훈련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온전히 훈련받은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한 성도들의 발걸음

장우애 이애를 위한 강연회 및 후원복지단 개관 12주년 세미나



지난 3월 28일 수요일, 교회가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마련한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국제특수교육행정위원회의 상임이사(C.A.S.E. Executive Director)인 루안 퍼셀 박사(Luan L. Purcell, Ed. D.)의 강의를 진행한 이 시간에 400여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매우 번거스러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셨던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한바 이웃 사랑이 아닌, 삶 속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성경적인 리더십을 깨닫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계속된 후원복지단 개관 12주년 기념세미나에는 루안 퍼셀 박사와 더불어 특수교육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하여 "한국과 미국의 특수교육 동향"에 대한 이해와 나아가 구체적인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장애우를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시기 바라며, 귀한 사역을 위해 세움받은 후원복지단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아닌 주님의 준비하심으로

선교 출발일이 며칠 남지 않았을 무렵 나의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았었다. 음식을 먹으면 무조건 토하고 배가 너무 아프서 계속 병원에 다녀야 했다. '제발 선교지에 가서는 아프지 말아야 할 텐데...' 라는 걱정을 하며 출발일을 기다려야 했다. 드디어 출발 당일, 설레는 마음 반 걱정 반으로 나는 교회로 향했다. 교회에 도착하자 널박박 같은 소리가 났었다. 현지 사정이 좋지 않아 전도지와 찬양집을 모두 두고 가야 하며, 현지에 도착해서도 준비된 차량이 없을 거라고 했다. '건강도 좋지 않은데도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을 텐데... 낯선 나라에 새벽에 도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것이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 속에는 걱정스러움보다 왠지 모를 든든함이 자리잡고, 나는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

선교지에 도착하여 정답을 마치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에 들어갔다. 전도지가 없어 더더욱 말이 통하지 않았다. 노방 전도를 할 수 없었기에 축조전도를 하느라 많은 영혼들을 만나지 못했다.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여 아쉬움으로 가득한 사역이 계속되었고,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했던 교만으로 일룩진 나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다.

다음 날 한 마을에서 우연히 어린 아이들 몇을 만나 복음을 전한 뒤 다음 동네로 이동하려 할 때 아이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다. 당황스러웠지만 너무 감사했다. 아이들과 다음 날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다음 사역에 임하였다.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그 아이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가르쳐 주었다. 눈을 반짝이며 서로 말에 없었던 아이들을 보며 나는 너무나 감사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서 사랑을 한껏 느낄 수 있었다.

역시나 그랬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사역을 잘 해낼 수는 없었다. 전도지가 있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그토록 걱정하던 건강도 사역지에 도착하자마자 잊은 듯이 나게 해 주셨다. 차량도 예비해 주셨고,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아도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리고 사랑과 노려해도 되지 않던 영혼을 향한 사랑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 주셨다. 주님께서 보내주시 사역지에서 만난 아이들이 처음 접했을 찬양을 내가 귀가 아플 정도로 큰 소리로 부르던 그 사랑스런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현영이(대북부 5팀)

지난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3월 28일(수) ~ 4월 5일(목)	13교구 1팀	정철규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평신도 단기선교사
4월 4일(수) ~ 6월 23일(토)	정영미·전혜영(예배대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9일(월) ~ 4월 18일(수)	12교구 1팀	이성섭
4월 9일(월) ~ 4월 18일(수)	15교구 1팀	최진성
4월 10일(화) ~ 4월 19일(목)	18교구 1팀	김홍기

“당실덩실 춤이라도 추었을 거예요!”



서영: 얼마 교회에 사순절이라고 써 있던데... 사순절이 뭐예요?

엄마: 음, 사순절은 부활절 전의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 거란다. 예수님의 부활을 위한 준비활동 기간이 되겠구나. 이 기간 동안 우리들은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거야.

서영: 부활절이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고... 부활절은 다시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셨는데... 에이~ 들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엄마: 그래, 엄마가 얘기해 줄게 들어보렴. 서영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장간에서 다스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오신 거는 알지?

서영: 네! 손에 못을 박았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면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요.

엄마: 서영이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래, 엄마도 계سم에서 하느님께 올려 기도하는 예수님을 떠올려봐 눈물이 난단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 예수님 시신이 향유를 바르려 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시체가 없었지 냄새 맡고 울고 있을 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 그것은 말씀하셔.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사람들에게 알릴 주어야.”

서영: 우와!!! 내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었을 거예요!

엄마: 그래! 너무나 기쁜 날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의 날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 생명을 기뻐하는 날이지.

서영: 음, 정말 정말 많이 많이 중요한 날이구나!

엄마: 서영아,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한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서영: 부활의 증인이?

엄마: 그래~ 서영아, 교회에서 부활절에 계란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주는 것은 왜 그럴까?

서영: 아, 알았다.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전도하자는 뜻이 가 봐요.

엄마: 그렇지, 우리 서영이, 예수님처럼 지혜도 똑똑 자랐구나. 그래 서영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나눠 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란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셨잖나?

서영: 그럼 저도 부활절에 제 친구 중민이랑 수지에게 계란을 주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 해 줄 거예요!

엄마: 우와, 우리 서영이 참 착하네. 예수님이 보이고 기뻐하시겠는 걸!

서영: 히히... 엄마, 부활절에 부를 찬양대 곡 연습할래요.

엄마: 그래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 먼저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할까?



서영: 네, 얼른요!!

박혜진(유치부 조서영의 엄마)

예수님은 오늘도
저를 기다리고 계신데...

예수님! 오늘은 부활절이네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돌아가셨다 다시 사신 날이요. 예수님! 제가 무엇일지, 인간이 무엇인데 절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늘 예수님을 믿고 살고 세상을 좋아 자꾸 예수님을 떠나가던 저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를 기다리고 계신데...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전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았지만 별로 없더라고요. 매 시간마다 해야 하는 일인데... 죄송할 따름이에요.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의 생각과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고 인도해주세요. 저도 예수님을 바라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다시 살아나심,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 결로 가는 날까지 항상 전파하겠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장지나(중등2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친구인 주현이는 어렸을 때부터 불교를 믿어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주현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주현이가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현이가 좋은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다.

저는 제가 아직 어리고, 아직 세례도 못 받았지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제 주위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전하기가 정말 속스럽기도 하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에게는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에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 이제는 제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이 좋은 예수님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일 것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기쁜 부활절을 맞이하며 저와 제 친구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부활하시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진실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홍예은(초등부)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맛있고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 정말로 사랑해요! 저를 사랑하셔서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워요. 근데요. 제가 더 기분이 좋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자 마귀는 자기가 완전히 이겼는 지 알고 너무나 좋아했을 거라고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그 마귀를 물리치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맛있고 너무나 좋아요.

저는요 커서 우리 예수님만 전하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십자가 지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목사님 말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목사님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 저도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물라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전도하고 싶어요. 저의 친구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할게요. 그래서 함께 천국에서도 뛰어놀게요. 예수님 정말로 많이 사랑해요.

하주진(유년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 안영하세요? 저는 김주은이라고 해요. 이번에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을 기념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해 주신 것 더욱 감사해요. 부활절 예배드릴 때 진심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도 많이 하고 예수님 말씀도 순종하고 싶어요.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게 해주세요.

김주은(소년부)

새가족양육부 3월 수료자

예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삶!

▶ 우연치 않게 보게된 전도지를 통해서 중현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영적으로 평안하고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제 삶에 회개가 있고 참 기쁨이 생겼습니다. (장해원)

▶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언제나 제 옆에 계시며 저를 사랑하고 계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생활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나 혼자만이 아닌 하나님의 오른손을 통하여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 선)

▶ 중현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들어주시고 받아 주시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일에 늦잠 자며 무의미했던 삶이 교회에 나오면서 어린 딸들보다 교회 가자고 하면 뽀짝 일어나며 즐거워할 때 기쁩니다. 잊고 있던 기도와 찬양을 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이 저에게도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평온이 있음이 늘 감사합니다. (손영배)

▶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의 평안이 있어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영도)

▶ 군생활에서 시작된 신앙생활은 제대 후 친구의 전도로 중현교회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하시며 모든 일에 대해 알고 계시면서 항상 지켜봐 주시어 좋은 길로 안내해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에 오면서 주일에 뭇찬 하루를 보내게 해 주어 고맙고, 마음의 안식처가 생겼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모르던 죄를 알게 되었고, 죄를 알게 됨으로써 예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조종규)

▶ 집사님이 1991년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저에게도 교회에 나가자고 하였으나 이제야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참으로 좋은 분이십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매일 성경을 정독합니다. 앞으로 예수님께 가까이가기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이상호)

▶ 회사 오빠의 전도로 왔습니다. 늦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장애가 있지만 교회생활을 하면서 참 기쁨이 생겼고 사랑부(*정신지체장애우를 위한 부서)에서 찬양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술을 안 먹게 되었습니다. (최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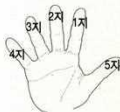
▶ 한 형제님의 전도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멋있고 충성된 분이랑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죄 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나 자신을 거울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의 삶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현)

(정리 : 편진국)

수화 칼럼 ③

“손으로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1. 부활



동작 설명
5지를 편 두 주먹을 오른쪽으로 높혔다가 5지를 접고 1지를 펴서 세운다.

2. 사랑



동작 설명
원손으로 주먹을 쥐고 오른손 바닥을 왼손 위에서 돌린다.

3. 예배



동작 설명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을 이마에 댄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두 손을 상하로 겹쳐 안으로 당긴다.

4. 아멘



동작 설명
두 손을 양쪽으로 펼쳤다가 가슴 중앙으로 모아 손 바닥을 잡는다.

5. 선교(전도)



동작 설명
두 손으로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 입 앞에서 밖으로 내밀며 활짝 편다.

♡ 새 가족 을 환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559	이영선	19	청년1부	윤선현(1)	567	윤자영	4	청년2부	손창순(10)	575	안윤미	8	청년2부	한금자(8)	583	한은미	19	청년1부	이수진(4)
560	고재영	19	대학부	정문호(9)	568	박진희	17	청년1부	이진규(6)	576	변용화	13	소망부	이현옥(13)	584	김성환	19	청년1부	정숙희(10)
561	이정민	19	청년1부	최민석(4)	569	유재민	17	청년1부	이진규(6)	577	장호순	9	청년2부	유신덕(7)	585	서영지	19	청년1부	류기명(4)
562	임정희	19	청년1부	강신준(1)	570	이선아	1	청년2부	김종희(13)	578	오영순	11	소망부	김복수(10)	586	홍효철	19	외선부	류기명(4)
563	이혜	19	외선부	이경준(1)	571	김경숙	12	청년2부	김영희(12)	579	송예스더	19	청년1부	김연태(9)	587	김지력	19	외선부	류기명(4)
564	임 은	19	대학부	김현옥(9)	572	김정현	2	청년1부	김복녀(2)	580	최희진	1	소망부	장영수(1)					
565	서명철	13	청년2부	서영주(13)	573	이훈준	2	청년2부		581	최유리	19	대학부	이명옥(2)					
566	유승철	9	청년2부	이옥자(9)	574	산기	19	외선부	장영숙(13)	582	최선호	12	청년2부	김 근(7)					

* 중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